

도심갤러리서 시장까지 '광주는 전시중'

비엔날레만 보면 손해... 다양한 분야 명품 전시 풍성

이우환 전·'Ctrl+N·비선형적 실험'전 등 국내외 유명작가 작품 감상

광주 미술계가 어느 때보다 풍성하다. 제9회 광주비엔날레를 계기로 세계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술가들의 신작을 보려는 미술계 인사들과 애호가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시가 도심 갤러리부터 시장 등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국내의 미술계에서 내로라 하는 작가들의 전시회가 동시에 펼쳐지는가 하면, 한층 가까워진 중국 현대미술의 흐름도 엿볼 수 있다. 한반쯤 발품을 팔아볼만한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이면서 참신함을 엿볼 수 있는 전시도 적지 않다.

우선, 시립미술관이 12월 9일까지 여는 '이우환'전은 '점'과 '선'으로 세계적 화가가 된 작가 이우환(76)씨의 작품 세계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다. 이씨는 (새한국미술사)가장협회 등의 '2011 한국을 대표하는 생존작가 1위'에 오르려는가 하면,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도 '블루칩'작가로 꼽힌다.

이번 전시는 하정웅 명예관장의 기증으로 이씨 작품을 35점 소장하게 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보유한 시립미술관의 '명품' 전시로, 이씨의 70년~80년대의 '점'과 '선', '바탕' 시리즈에 이어 90년대 초부터 시작한 '조음'을 타이틀로 삼은 연작 시리즈와 2000년대 '대화(Dialogue)'를 주제로 한 신작까지 한 자리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

시립미술관이 다음달 9일까지 진행하는 'Ctrl+N·비선형적 실험'전도 놓치면 후회할 전시다. 중국 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15명의 작품 42점을 펼쳐놓는 전시로, 미국에서 작업 중인 중국 출신 작가 구엔다의 작품은 눈에여겨볼만하다. 상륙전시관에서 다음달 7일까지 여는 '객상은 책상이다'전도 권승찬·주대희 등 주목할만한 지역 청년작가 15명의 다양한 분야의 작품 7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조선대가 개교 66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특별전 '장미원에 부는 샛바람'전은 영·호남 출신 예술가 30여명의 작품을 한 자리에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전시다. 12일부터 22일까지 조선대 미술관에서 열리며 진원장·최재영·강동권·박홍수·송필용·이진우 등의 작품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

동구 대의동 갤러리D가 다음달 3일까지 진행하는 '나는 그들의 것이 아름답다'전은 영국 출신 yBa(young British artists)의 대표 작가 데미안 허스트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포틀랜드데드 용액이 든 수족관에 실제 상어의 시체를 넣어놓거나 소를 토막내는 작품으로 만드는 그의 작품 중 종이에 실크 프린트 방식으로 다이아몬드 기부가 뿌려진

'신의 사랑을 위하여'가 선보인다.

대인시장에 마련한 대안예술공간인 '미테우그로'도 국내외 젊은 작가들의 참신한 전시를 마련, 비엔날레 관람을 온 국내외 미술계 인사 및 지역민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미테우그로 3층 스튜디오에서는 최미경·조은정·이민정씨의 '일상 속 깨알상상'전을 다음달 6일까지 여는 것을 비롯, 조나임, 윌리엄 앤더슨 등 해외 작가들의 독특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진행중이다.

롯데갤러리가 14일까지 여는 '판아시아 네트워크 퍼포먼스 아트 소장 자료전'도 색다른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이우환 작 '선으로부터'



구엔다 작 '수묵연금술 공방'

도심을 벗어난 무등산 자락으로 발길을 옮기면 무등현대미술관의 '다원주의'전을 쟁취해야 한다. 11월 14일까지 흥경택·이이남·홍성민·유재명 등 '뜨는' 젊은 작가들을 내세운 전시로, 흥경택씨는 지난 2007년 홍콩 크리스티의 봄 경매에서 당시 한국작품으로는 최고가(7억7760만원)로 낙찰됐던 '연필'작가다. 이이남씨는 국내 대표적인 미디어아트 작가로, (새한국사립미술관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역량을 갖춘) 국내 작가들을 해외에 소개하는 '코리아 아티스트 프로젝트'(KAP-Korean Artist Project)에 선정된 바 있다.

화순 너릿재 인근 소야르 갤러리에서는 40대 미만 젊은 작가의 참신함을 엿볼 수 있다. '릿모습'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알려진 이호흡씨를 비롯, 허수영·이진희씨 등 13명의 젊은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데미안 허스트 작 '신의 사랑을 위하여'

국내 최고 경연... 국악의 진수를 느낀다

14~17일 '임방울 국악제'... 임방울 판소리 장끼재랑 등 다채

광주가 낳은 국창(國唱) 임방울(1905~1961) 선생이 부르는 '쑥대머리' 한 대목은 나라 잃은 설움과 전쟁 등에 지친 민초들을 위로하며, 그의 소리에 사람들을 울고 웃으며 위로받고, 힘을 냈다.

1930년 발매한 춘향가 음반이 100만장 넘게 팔렸고, 5일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장과 영결식 현장에는 국악인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를 떠나보냈다.

임방울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고, 그의 뜻을 이어 예술인들을 발굴하는 뜻깊은 행사가 마련된다.

광주시 등이 주최하고 (사)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중채)가 주관하는 제20회 임방울국악제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다.

판소리 명창부 대상(대통령상)에게 1500만원과 순교 트로피를 수여하는 등 각 분야 수상자에게 모두 7300만원의 상금을 시상하는 임방울국악제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국악경연대회다.

SBS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 되는 개막식과 국악경연은 17일 오후 2시부터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다. 김학용·남상일·서정금씨 등이 출연하는 '뽕과진', 명인 임이조씨의 '허튼 살풀이' 등을 만날 수 있는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이어서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판소리 명창부와 기악·무용 분야 일반부 본선 경연이 펼쳐진다.

학생부 경연은 15일 오전9시부터 광주·18기법문화관에서 열리며, 판소리 명창부와 일반부 무용·기악 등 예선은 16일 광주향교 등에서 분산개최된다.

개막식 전에는 광주문예회관 국악당 앞에

자리한 임방울 동상 앞에서 '국창 임방울 예술촌 모시기' 행사를 진행한다.

14일 오후 6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전야제는 국악인 오정해씨의 사회로 진행된다. 최영준씨가 번사로 출연, 무성영화 '임방울과 산호주'를 감칠맛나게 선보이며 오디션 프로 '코리아 갓 탤런트'에서 대상을 수상한 광주 출신 춘곤 주민정씨가 광주시립국극단 풍물패와 함께 흥겨운 공연을 선보인다. 또 광주시립국극단의 모듬북과 춤, 주순자·최연자·김향순씨 등 지역 소리꾼들이 들려주는 남도민요 등이 주프로그램이다.

같은날 오전 9시부터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는 소리를 사랑하는 아마추어들이 참여하는 '임방울 판소리 장끼재랑'이 열린다. 19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임방울 선생의 대표곡인 '쑥대머리', '호남가' '추어' 가운데 한곡을 부르면 된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는 지난해 요코하마에서 역대 수상자들이 출연하는 공연을 진행했다. 올해는 고려인 강제 이주 75주년 한·우즈베키스탄 수교 2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17일 타슈켄트나보이 바레 오페라극장에서 공연을 갖는다. 이날 공연에서는 단막창극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 풍물놀이, 가야금 병창, 부채춤, 바라춤 등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공연에 앞서 오는 10월 17일 오후 4시 광주중외공원 특설무대에서 한차례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별한 손님들도 방문한다.

지난해 일본 가와사키 현립 음악당에서 열렸던 임방울국악제 수상자 공연을 관람했

던 한국어교육센터 '정명숙씨 일행 100여명'이 임방울국악제가 열리는 14~17일 일정에 광주를 방문한다. 이들은 14~18일까지 광주에 머물러 전야제 축하공연과 판소리 경연대회를 참관하고 국립광주박물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전주 한옥마을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문의 062-521-07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7300만원 상금... SBS 생중계 오정해씨 사회로 전야제 진행

베니스 효과 '피에타' 흥행몰이

광주 상영관 10여곳으로 늘어... 책도 인기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에 관객이 몰리면서 상영관도 늘고 있다. 또 책 '피에타'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피에타'가 공식 개봉한 지난 6일 광주에서 영화를 만날 수 있는 곳은 광주극장과, 롯데시네마 수완점 등 3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수상소식이 알려지면서 대부분의 멀티플렉스관들이 '피에타'를 상영하고 있다.

10일 현재 메가박스 첨단과 전대, 광주콜롬버스, 콜롬버스 하남, 롯데시네마 상무, CGV 광주터미널 등에서 '피에타'를 상영중이다. 전국적으로 150개에서 출발한 스크린수도 10일 현재 229개로 확장됐으며 9일까지 관객 수는 6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목요일이었던 지난 6일 '피에타'를 개봉, 매일 한차례씩 상영중인 광주극장의 경우 개봉 첫날에 70명의 관객이 다녀갔지만 수상 결과가 나왔던 지난 10일에는 200명의 관객이 극장을 찾았다. 또 평일 조조로 상영한 10일에도 100명의 관객이 다녀갔다.

시나리오를 소설로 각색한 영화 소설 '피에타'는 예약 판매로 초판 5000부가 완판돼 출판사 측이 재판 인쇄에 들어갔다.

순제작비 1억5000만 원으로 만든 '피에타'의 순익분기점은 20~30만 관객이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중 최고 흥행작은 전국 74만 명을 모은 2002년 작 '나쁜남자'다. '피에타'는 채무자의 돈을 받으며 살아가는 악마 같은 남자(이정진 분) 앞에 어느 날



엄마라고 주장하는 여자(조민수)가 찾아오면서 두 남자가 겪게 되는 혼란과 점차 드러나는 잔인한 비밀을 그린 영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 (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효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광역시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